

# 생산원가 못미쳐 헐값처분 일쑤 생협, '두충수매요청안' 수급조절위에 상정

한국생약협회는 최근 "국내산 두충 수매 요청안"을 수급 조절위원회에 상정하는 한편, 관련 소비단체에도 국내산 두충수매 협조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두충은 지난 90년 이후 과잉재배되기 시작하면서 600g당 1만원선에서 3천원선으로 값이 폭락하면서 좀처럼 회복세로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 식품원료로의 소비도 상당한 편이나 식품원료로 반입된 수입두충 영향으로 국내산 두충의 물동량은 부진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충청북도 제천의 이한승씨(51세 생약협회 충북도지회장)는 "산지에서는 생산원가에도 못미치는 국내산 두충시세 때문에 헐값에 발매기로 넘기거나 처분하고 싶어도 작업인건비 등 소요비용이 만만치 않아 손을 쓰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하소연했다.

수피작업된 두충 농가 보유 추정량은 약 600톤 이상이며 식재돼 있는 수확가능량까지를 포함할 경우 국내산 두충량은 약 5,000톤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지난 91년 202톤에 불과하던 두충 생산량은 600g기준 12,600원 선을 호가하던 94년(1,366톤)을 기점으로 대폭 늘기 시작, 95년 1,649톤, 96년 2,680톤 까지 증가했다. 생산량 증가와는 반비례로 시세는 94년을 기점으로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 96년 9,420원, 98년 5,500원선으로 폭락하더니 600g상품기준 4,160원선으로 곤두박질친 지난해에는 생산량도 1,554톤으로 급감했다. 2001년 7월말

현재 600g상품기준 두충시세는 3,500원선이다.

한편 지난 7월9일 열린 제43차 수급조절위원회의 결과 국내 수급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시호, 지황에 대해 150톤, 600톤을 각각 수입기로 결정했다. 통관기간은 이달 31일까지며 국내 생산농가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01년 해당품목의 생산량에 대해서는 전량 수매해주는 조건이다.

## 생약자원 산업화 적극 추진 충남도, 약초 500여종 수집 재배법 확립

해소와 갈등에 효과가 있는 다년생 풀인 지모, 소화제로 쓰이는 용담등 우리 생약자원을 보존하고 개발하는 연구가 진행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충남도농업기술원(원장 노태홍)은 최근 오는 2002년까지 우리 들뜰에서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기능성 생약자원인 약초 500여종을 수집해 재배법을 확립하고 산업화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농업기술원은 이를 위해 지난해 8월 작물연구과 특작연구팀을 생약연구팀으로 개편하고 본격적으로 기능성 약용작물 수집에 나서 지난해 330여종과 올해 70여종 등 모두 400여종의 생약자원을 확보했다.

생약연구팀은 수집한 400여종의 품종특성을 밝히고 우량품종을 육성하기 위해 1,500평 시범포에서 실증재배하고 있으며, 2003년 조성할



충남농업테크노파크에 각 작물의 생육환경에 맞는 생약시험포장 3.6ha를 마련해 소득작목화 기술을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수집된 자원중 초롱담 등 95종의 기능성 생리활성물질분리와 추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생약연구팀은 효과적인 연구와 개발을 위해 한국인삼연초연구원을 비롯해 충남대 생명공학연구소, 대전대 한의학과 등 생약분야 전문가들과 연계해 공동연구

## 약초 명품화사업 활기 제천시

제천약초의 상품성을 높이고 다양한 판로확보를 위해 약초가공시설 건립과 약초순대가 개발되는 등 약초 명품화사업이 잇따라 추진되고 있다.

우리약초 영농조합법인(대표 정근원)은 지역특화작목육성사업비 등 1억4천5백만 원을 들여 제천시 산곡동 6백88평의 용지에 저온저장고 및 가공시설을 지난 4월착공, 16일 준공했다. 또 제천시농업기술센터는 약초를 대중적

인 먹거리로 발전시키기 위해 약초순대를 개발, 하고 지난달18일 평가회를 갖기도.

약초순대는 황기 당귀 천궁 등 제천특산약초 10여종을 이용한 약초소스로 순대 특유의 냄새를 없애고 부드럽고 담백한 맛을 내게하는 등 보양식품으로 인기를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제천약초는 기후와 토질이 알맞는 조건에서 재배돼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으며 약초시장은 소백산 월악산 일원은 물론 강원도 남부지방과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약초까지 거래돼 생산 및 유통의 거점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생약농업관련정책

약용작물 품종보호대상작물이 22개 품목으로 확대 실시된다.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생약을 포함한 농업관련 정책과 시책을 알아 본다.

◇약용작물 품종보호대상작물 확대 및 심사수수료 등 인하=약용작물 품종보호 대상작물에 지황·구기자·마 등

으로 한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제 실시=친환경농산물 표시제와 품질인증제가 통합된다.

◇인삼산업관련 제도개선=미삼·잡삼 등의 검사가 의무화되는데 유효기간은 2002년 6월30일까지다.

◇농산물원산지 표시=원산지 미표시 과태료 부과기준은

## 품종보호 대상작물 22종으로 확대 시행

20개 작물이 추가된다. 이로써 약용작물의 경우 기존의 당귀, 황기 외에 지황, 구기자, 마(산약), 시호, 길경(도라지), 결명자, 토천궁, 맥문동, 백지(구릿대), 식방풍 등이 품종보호 대상작물에 포함된다. 또 품종보호 심사수수료 및 국가품종등록 심사료가 연간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하되고, 품종당 품종보호료도 현재의 70% 선으로 내린다. 다만 동일 속 또는 동일 종에 속하는 품종으로서 동일 작기에 재배시험을 실시할 수 있는 품종을 동시에 2개 이상 함께 출원하는 경우에는 <20만원+(품종의 수-1)×5만원>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기존의 적발장소 당시 물량을 기준으로 했으나 앞으로는 보관물량까지 포함해 처벌한다.

◇산림관계=수목 유전자원의 해외 유출때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업인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기계 및 장비를 대여받을 수 있고 작업기술 지도를 할 수 있는 임업기계지원센터가 강원 강릉 임업기계훈련원 및 전북 진안기능인훈련원에 설치 운영된다.

◇농지조성비 감면대상 확대=올 8월쯤 예정된 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치했을 경우에는 농지조성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 충남도·한솔텔 약초전문 포털사이트

인삼 감초 당귀 등 국내에서 나는 갖가지 약초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문을 열었다.

충남도청은 한솔텔레콤(www.havsoltelecom.co.kr)과 공동으로 약초 전문 포털사이트 '코허브(www.korhurb.net)'를 개설했다.

코허브는 약초와 한방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과 함께 약 6개월간의 개발기간을 거쳐 총 16만 여건의 약초 정보를 인터넷에 올려 놓았다.

특히 약초의 효능과 한방상식 민간요법 등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일반인도 쉽게 원하는 내용을 검색할 수 있게 한 것이 장점이다.

코허브에서는 이밖에 인삼을 비롯한 약초의 상세한 정보는 물론 재배가공 기술과 특허 관련 법령 통계자료 등 다양한 내용들도 함께 수록했다.

도 추진하고 있다.

생약자원 연구를 맡고 있는 생약연구팀 한승호 연구사는 "이번 연구는 생명공학산업의 귀중한 소재인 우리 생약자원을 보존하고 활용해 각종 질병

병 치료약이나 건강식품 등으로 개발하기 위한 것"이라며 "효능과 재배법이 확립된 생약자원은 이르면 올해부터 농가에 분양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오리나무류 잠정 수입금지 미국 EU일부지역 역병발생 피해확산 우려

미국 및 EU 일부 지역산 참나무류 및 오리나무류 수입이 잠정 금지된다.

농림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소는 최근 미국 및 EU일부지역에서 참나무류 및 오리나무류에 피해를 주는 역병이 발생하여 확산됨에 따라 식물방역법 제6조(수입제한) 제4항에 의거 이들 지역으로부터의 참나무류와 오리나무류 수입을 오는 8월16일자 선적분부터 잠정 금지한다고 밝혔다.

참나무류와 오리나무류에 피해를 주는 역병은 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의 생리와 생태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병에 감염되면 참나무와 오리나무는 말라죽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 등으로부

터 참나무 원목 등을 수입하고 있으며, 국내 전체 삼림면적 중 참나무가 약 26%, 오리나무가 약 1.7%를 점유하고 있어 이 병이 유입될 경우 경제적·자연환경적으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금지대상식물은 다음과 같다

△오리나무류(Alnus spp.)의 종자, 묘목류 및 목재류 △참나무속(Quercus spp.) △돌참나무속(Lithocarpus spp.) △허클베리(Vaccinium ovatum) △철쭉속식물(Rhododendron sp.) △마드론(Arbutus menziesii) △월계수(Umbellularia californica)의 과실, 종자, 묘목류 및 목재류 등이다.